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서수민 PD “안주하면 개콘도 닮아”

‘멘붕스쿨’ ‘여배우들’ 등 새 코너 정비

서수민(40)〈사진〉KBS PD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유명 인사가 됐다. 1년 8개월 짝 진행 중인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에서 개그맨 박성광의 ‘제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다. ‘웃생간’이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말이다.

지난 20일 만난 ‘개콘’의 수장 서수민 PD는 “짜고 하는 건데 자꾸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 박성광이 점점 미워지더라”며 웃었다. “원래 상광이가 2~3주만 저를 주제로 잡고 다른 PD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파업이 겹치면서 그러질 못했어. 자랑 미리 얘기 가 되긴 했지만 친구도 하다 보니 진짜 나쁜 생각을 하면서 개그를 한 것 같아. 나중에 는 저도 못 견뎌졌다고요. 박성광이 너무 싫었어요.(웃음)”

서 PD는 “기대에 빨리 부응해야겠지만 차분히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시청률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나섰다. 대결이 고조되던 지난주 두 사람 합은 합의 하에 대결을 그만 하기로 했다. 서 PD는 “나름대로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 우리끼리 종파티를 하고 감정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뒤 대대적인 코너 재정비에 나섰다. ‘멘붕스쿨’, ‘정역사’, ‘여배우들’ 등 새 코너들을 대거 선보였고 ‘비상대책위원회’, ‘사마귀 유치원’ 등 간판 코너들을 폐지했다. ‘안주하면 개콘도 닮는다’는 지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너 정비에 나선 지 3주 남짓 됐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코너는 아직 찾기 힘들다. 서 PD는 “기대에 빨리 부응해야겠지만 차분히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시청률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콘’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졌던 세 가지 꿈 중 ‘타사 코미디 프로그램 부활’과 ‘개그맨들이 개그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풍토 조성’의 꿈을 이뤘다. 나머지 한 가지 못 이룬 꿈은 강력한 여자 코너 만들기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여자 PD인 만큼 여자 시청자 개개에 답이 있었으면 했다”며 새 코너 ‘여배우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C ‘무한도전’ 복귀...시청률 1위

MBC ‘무한도전’이 24주 만의 분방송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복귀를 자축했다. 22일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전날 전국 기준 14.0%, 수도권 기준 15.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파업으로 재방송 분이 방송된 지난

주마다 각각 7.7%포인트, 8.0%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그러나 파업 직전인 지난 1월 28일보다는 전국 기준으로 5.5%포인트 하락했다. 1월 28일 방송된 ‘하하 대 홍철’ 2편의 전국 시청률은 19.5%였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24주 연속 재방송으로

대체된 ‘무한도전’은 노조의 업무부귀로 전날 분방송을 재개했다. 전날에는 그간 멤버들 및 예능계의 근황을 정리한 ‘무한뉴스’와 ‘하하 대 홍철’ 1, 2편 하이라이프가 전파를 뒀다. 멤버들은 24주 만의 복귀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재석은 “‘무한도전’이 174일 만에 돌아왔다”며 감격했고, 박명수는 “174일이 174년 같았다”고 감회를 전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단단히 메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Table with 4 columns: 1. Sales went up 50% (English/Chinese), 2. 先則制人(선즉제인) (Chinese), 3. 紅一點 靑一點 (Chinese), 4. 顔が千上がるほど苦しいです。 (Japanese).